백스캐터(Backscatter)

(행14:1~18)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백 스캐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백스캐터(Backscatter),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알몸투시 X선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에 공상과학영화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공상과학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첨단기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상에 속하는 그런 기계였겠지요.
그게 바로 '알몸투시 공항 검색기'입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고 난 11년 뒤 2001년 9월 11일에 어마어마한 역사에 남을 테러사건이 미국 본토 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테러사건 직후에 미연방교통안전국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미연방교통안전국이 바로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알몸투시 공항검색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3년에 걸쳐서 이 '알몸투시 X선 검색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공항에 도입해서 사용하자니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투시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논쟁에 휘말려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에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 뒤로 미국전역의 30개 공항에서 174개가 도입되어서 사용되다가 금년 1월에 전면철거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금년 6월까지 전면 철거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알몸을 보여줘야 됩니까?
물론 수치를 느낄만한 신체부위들은 좀 흐릿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나체의 윤곽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아 거 참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없어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신앙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의해서 어떠한 장소에서든 간에 당신이 투시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프라이버시가 우리들에 의해서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침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침해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투시할 수 없으면, 신앙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투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복음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투시하는 backscatter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투시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너덧 분이 강릉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제로원복음방송을 들으라고 권면해서 방송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설교시간에 계속 하나님으로 배부르라, 배부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것이냐? 알 수가 없다'고 질문을 하더라고 제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지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투시되어서 보이면 배불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잠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투시되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님께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 풍랑이라고 하는 현상을 뚫고 하나님이 투시되면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투시되면 잠잘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상황을 뚫고 투시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책동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힘을 합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쫓겨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박해가 선교사역의 전략처럼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전도의 지역이 확산되어 갑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그리고 거기서 쫓겨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더베가 1차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곳에서의 전도를 끝으로 왔던 길을 역으로 돌아서, 항구도시 버가에서부터 배를 타고 출발했던 안디옥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도사역을 한 사역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은 무엇 때문에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투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악감을 갖고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굳건한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언급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 속에서 이름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가 사람들 앞에 느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빌자면,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장갑 삼았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장갑을 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뿐 아니라 쫓겨서 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장애우를 고치게 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헬라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올림푸스 12신 중에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 바울이 말씀을 주로 전하니까 - 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제우스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극구 사양을 하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사역이 왜 하나님을 투시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공히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연결해서 복음사역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들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게끔 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과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 적대감을 갖고 박해하잖아요?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왜 박해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 속에 들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장갑을 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장갑을 보는 겁니다, 그 장갑을 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해의식에 의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받을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이 배부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통해 이 세상에서 배불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똑같이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그런 반응,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투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장갑을 뚫고 그 속에 끼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려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봐버립니다.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인들이 와서 인사할 때, 특히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인사 같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팬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없습니다,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만 내 마음에 보여요'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면 안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좋아하면 안돼요.
이것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사라져버려도 팬이 된 그 하나님은 그대로 남아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왜 복음은 하나님을 투시하게 해주는 겁니까?
투시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우리의 알몸이 투시된다는 것은 옷을 입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투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가려져 있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가려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투시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즉,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들에 가 붙어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붙어있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서 투시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들리는 것들에 마음이 붙어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투시되고 뚫고 들리게 되느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붙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냄새나는 것, 맛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육체가 냄새 맡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고, 우리 육체가 맛보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 육체를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내 마음에서 투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붙어있으면 안 되고, 그게 투시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투시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들리고 접촉되고 맛보게 되고 냄새 맡는 이것들을 우리 마음이 투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가려고 합니다.

'아, 이놈 자식이 안 되겠네!' 혹은 '우리 아이가 참 자랑스러워!'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그 아이 위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막 좌우로 흔들릴 때, 그렇게 사업에 마음이 붙으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사업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업장 안에 전체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업장에 대해 죽은 채로, 사업장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서 배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식 때문에 기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기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돈 벌어서 기쁘기 전에 사업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면, 사업장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다음에,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아, 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주님처럼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포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내일 아침이면 목 베임 당해 죽을 텐데도 군사들 틈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호연지기를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투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려져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죽었음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을 때, 내 마음이 그 모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에 의해 가려졌던 하나님께서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반복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상대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적게 일어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표적과 기사가 적게 일어나는 거죠, 병원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오늘 영적인 backscatter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시하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고, 하나님을 투시함으로 마음에 호연지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장갑 되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역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예 우리 마음에 영적인 backscatter인 하나님 투시기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꽁꽁 묶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투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